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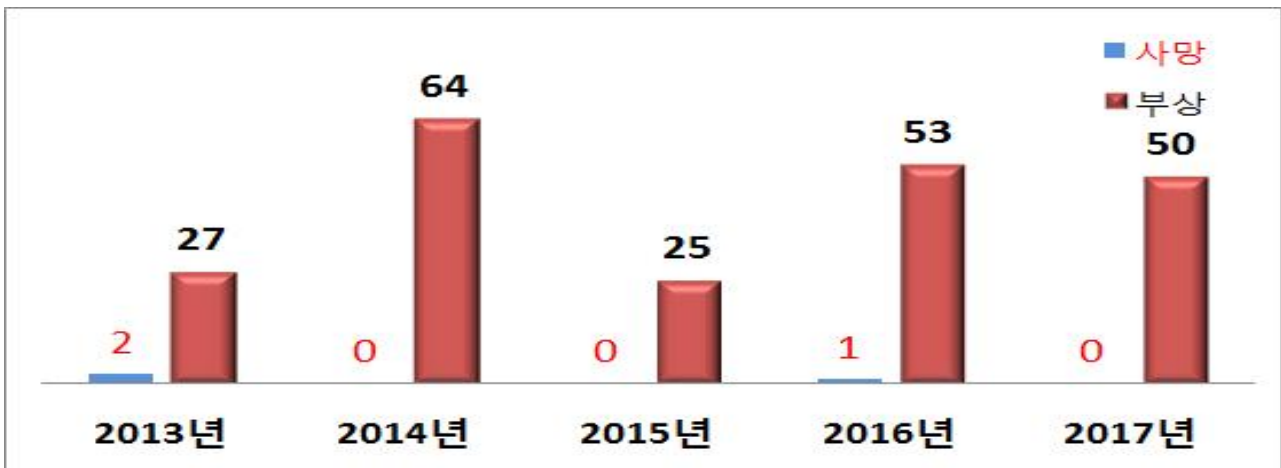
9월 주요 안전사고 예보

추석명절 성묘 및 벌초 안전사고 주의 !

□ 연도별 추석명절 관련 사고현황

구분	계 (명)	벌초 및 성묘 관련사고				
		벌 뺨 물림	예초기·낫	탈진	낙상 길 잃음	기타
계	222	132	43	12	21	14
2013년	29	8	11	4	4	2
2014년	64	32	17	3	7	5
2015년	25	11	8	0	3	3
2016년	54	45	5	1	2	1
2017년	50	36	2	4	5	3

《연도별 사상자 현황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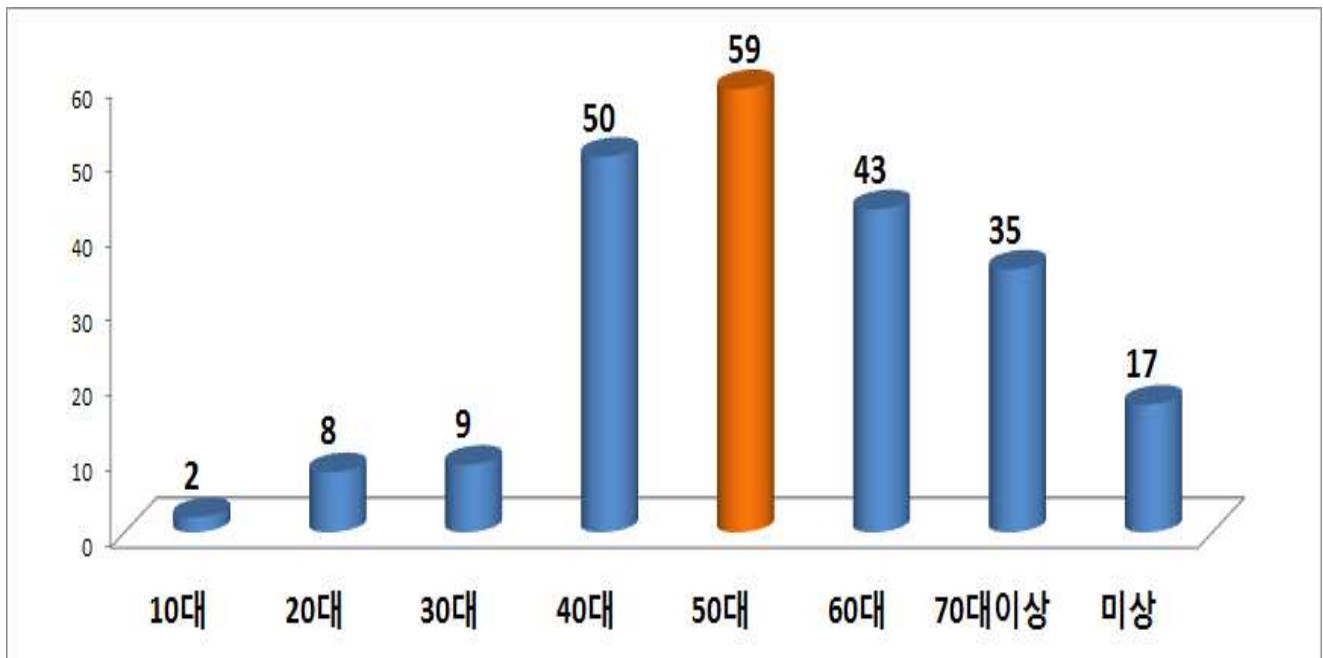


- 최근 5년간('13 ~ '17) 도내 추석 명절 성묘 및 벌초 관련 안전사고로 총 222명(사망 3, 부상 219)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, 이 중 벌 쏘임 사고가 59.5%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, 벌초 중 예초기 및 낫 등에 의한 부상자가 19.4%(43명), 낙상·길 잃음 9.5%(21명), 탈진 등 기타 26명으로 나타났다.

□ 사고 유형별 세부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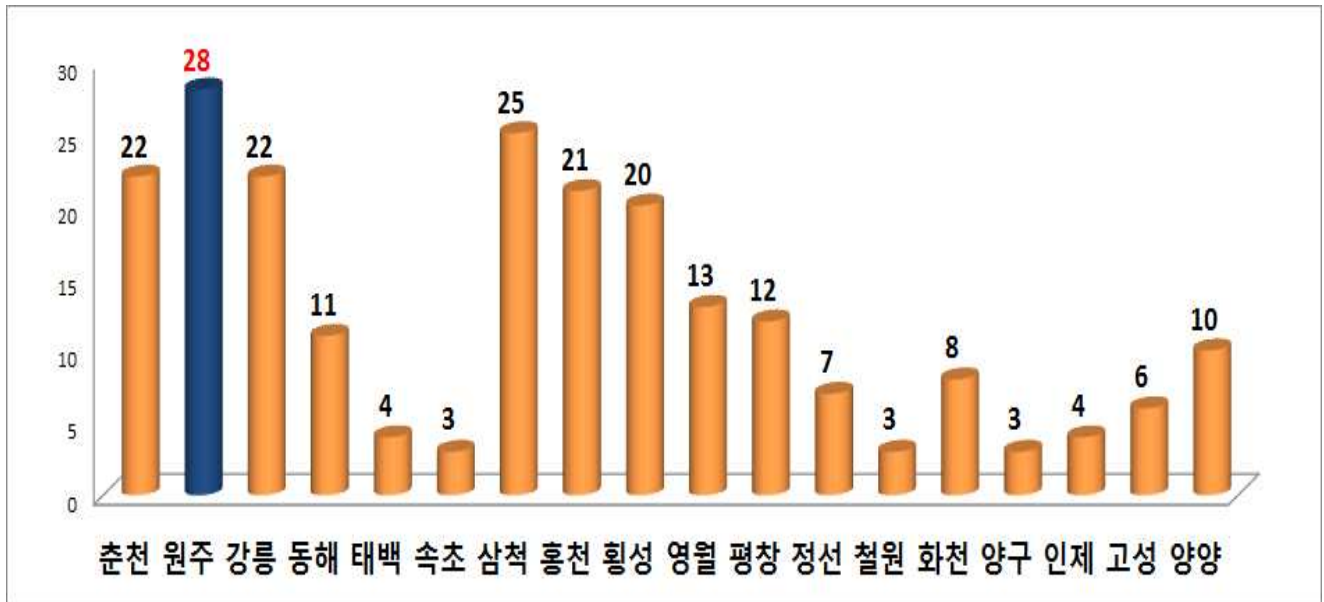


《연령별 사고현황》



- 사상자 연령별로 살펴보면, 50대가 26.5%(59명)으로 가장 많았으며, 40대 50명, 60대 43명, 70대 이상 35명, 미상 17명, 10~30대 1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, 남성이 87%(194명) 여성 26명, 미상 3명 등이었다.

□ 사고 지역별 세부현황



계	춘천	원주	강릉	동해	태백	속초	삼척	홍천	횡성	영월	평창	정선	철원	화천	양구	인제	고성	양양
223	22	28	22	11	4	3	25	21	20	13	12	7	3	8	3	5	6	10

○ 지역별로는 보면 원주가 12.6%(28명)으로 가장 많았고, 삼척 25명, 춘천·강릉 22명, 홍천 21명, 횡성 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벌초 · 성묘시 안전사고 예방요령

벌 쏘임 대처요령

- 벌을 자극하는 향수, 화장품, 헤어스프레이 사용 등은 자제
- 벌집을 건드렸을 때 큰 동작으로 뛰어서 도망가지 말고 최대한 움직임을 작게
- 벌집을 없애려고 분무형 살충제 등에 불을 붙여 벌집제거를 시도하다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주의
- 만약 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통증과 가려움 등을 가라앉히는데 도움
- 가벼운 증상이 아닌 호흡곤란 및 의식장애가 일어날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

뱀 물림 대처요령

- 산이나 들에 나갈 때 긴팔 옷이나 장화 등 보호의를 착용하고 잡초가 많은 곳은 막대기로 미리 헤쳐 안전유무를 확인 할 것
- 뱀에 물렸을 때에는 물린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심장보다 낮게 유지해 물린 상처가 있는 부위보다 5에서 10cm 위쪽을 수건으로 묶도록 할 것
- 독사에 물렸을 때는 상처 부위 독을 빨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, 사람의 입안 상처나 충치를 통해 독이 전염될 수 있으니 이 같은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할 것
- 무엇보다 뱀에 물렸을 경우 119에 신고하고 간단한 응급처치 후 최대한 빨리 항독소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게 가장 중요

예초기 사고 대처요령

- 작업도중 돌이나 칼날이 튀어 다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칼날 보호 덮개를 부착
- 예초기의 각 부분의 볼트 및 너트, 칼날의 부착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작업
- 보호안경, 안전화, 안전장갑 등을 착용하여 사고에 철저히 대비
- 예초기의 칼날이 돌이나 비석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고, 경사가 심한 비탈면이나 굽은 나무 옆, 돌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
- 이동 중에는 꼭 엔진을 정지시키고 작업하는 주위 반경 15m 이내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할 것